



보도시점

배포즉시

배포 2023.12.29.(금요일)

[2024년 재외동포청 정책돋보기]

“수수료는 인하, 발급은 신속”...재외동포청, 민원서비스 개선**-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갱신(재발급) 및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하 · 발급기간 단축**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도로교통공단(이사장 이주민)과 협력하여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운전면허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.
- 지금까지는 재외공관-외교부-도로교통공단(서부운전면허시험장)을 거쳐 진행되던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재외공관-재외동포청의 절차로 간소화되었다. 이에 따라 종전에 신청 후 4-8주가 소요되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2-6주로 줄어들고,
-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도 14달러에서→10달러로 인하됐다.
- 이 서비스는 운전면허 갱신(재발급) 업무가 대상이며, 전 재외공관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.
- 또한, 재외동포청은 법원행정처(처장 김상환) 간의 협의에 따라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도 1.5달러에서→1달러로 인하했다.
- 상기 2개의 서비스 개선은 일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,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.
- 재외동포청은 “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민원·행정서비스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김연식	02-6399-7150
		담당자	사무관	소수준	02-6399-7169
			과 장	라일락	02-6399-7155